

송미령(宋美齡; 1897-2003)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

이 양 자
동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목 차 —

1. 머리말
2. 송미령의 성장환경과 교육
3. 장개석과의 결혼 그리고 정치외교 활동
4.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지난 12월 초 갑자기 3·1여성동지회로부터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고 발표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나 공훈관리과를 통해 알아보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부였다. 즉 “1932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윤봉길(尹奉吉)의 의거가 일어나자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10만원(元; 위엔)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1940년 중경(重慶; 충칭)에서 광복군(光復軍)이 조직되자 다시 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1942년 중국부인전시구제회(中國婦人戰時救濟會) 회장으로 광복군 출정 군인의 가족에게 10만원의 구제비를 지원함”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도합 30만원(元)이라는 거금의 돈을 중국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가 우리 임시정부에 후원해 주었으며, 그 결과 그녀는 1966년에 훈격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장을 한국으로부터 수여받았다.

대한민국장 수여자는 총 30명으로 그 가운데 외국인은 5명 뿐인데 모두 중국인이며 그

중 송미령은 유일한 여성이다.

이 사실 이외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답변이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2019년 4월에 올릴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결국은 필자의 연구가 바로 그 몫을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사실 필자는 송미령(宋美齡; 쑹메이링)의 언니인 송경령(宋慶齡; 쑹칭링)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았으며 그 동생 송미령과 언니를 비교하는 논문을 씀으로써 세기의 이산자매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바 있다. 그래서 『송미령 평전』이라는 책도 한권 번역한 바 있으나 실제로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중국의 자료에서도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에 대한 것은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임시정부 관련 자료(『대한민국 임시정부사연구』 이현희,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 신용하, 『대한민국임시정부 3-중경시대』 한시준 etc.), 그리고 백범일지(『백범일지』 도진순 주해)등 10여 권을 찾아서 시기별로 연도별로 찾기 시작했다.

또한 송미령은 장개석과 결혼 후 정치 활동에 있어서 그림자처럼 남편을 따르며 도우며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했으므로, 필자는 장개석과 재중 한국독립운동가들과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 지원 상황을 알아내기로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 우리 독립운동을 되도록 정확히 살펴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이라는 이 제목의 글을 쓰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먼저 송미령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송미령의 집안 내력이나 송미령의 교육과 결혼 등 일생을 간단히나마 앞 장에서 덧붙여 서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만이 그 당시 송미령(宋美齡)의 위상과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아울러 그녀의 대한민국 독립 지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송미령에 대한 자료는 주석(註釋) 난에 쓰여 있지만 『중국 근대화를 이끈 걸출한 여성들』 『송미령 평전』 『송경령 평전』 등을 참고하였다.

2. 송미령 성장환경과 교육

송미령(宋美齡)은 上海의 유복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송가수(宋嘉樹; 송자수, 자는 宋耀如)와 어머니 예계진(倪桂珍; 니꾸이전) 사이에서는 애령(靄齡; 송아이링)·경령(慶齡)·자문(子文; 송쓰윈)·미령(美齡)·자량(子良; 송쓰량)·자안(子案; 송쓰안)의 6남매가 태어났는데 미령은 네째였다. Charles Jones soong(찰리 송)으로도 불리우는 아버지 송가수는 광둥성(廣東省) 해남도(海南島) 문창현(文昌縣)의 가난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1861년), 9살 때 茶·生絲의 판매점을 경영하는 친척의 양자가 되어 미국 보스톤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장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 전전하다가, 다행하게도 주위의 도움을 입어 테네시 주에 있는 반더빌트(Vandervilt)대학에서 신학공부를 마쳤으며 1886년 전도사가 되어 귀국하였다.

송가수는 귀국 후 상해(上海; 상하이)에서 《萬國公報》의 발행인으로 유명한 알렌(Y.J. Allen) 밑에서 전도사로 일하였으나, 중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알렌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불만을 느껴 독자적인 전도활동을 하기 위해 사임하였다. 그 후 상해에서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와 제분공장을 경영하는 부르주아로 성장하였고, 한편으로는 일찍부터 혁명운동에 뜻을 두고 손문(孫文; 쑨원)의 혁명 활동을 원조하였다.

부인 예계진은 온화한 얼굴과 늘씬한 체격으로 전족을 하지 않았으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신교육을 받은 활발하고 활동적인 신여성이었다. 상해의 브리지면여학교와 배문(培文)여자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피아노도 칠 줄 알았다. 그의 아버지는 浙江省 寧波 근처 余姚縣 출신의 법률학자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明末 기독교로 개종한 서광계(徐光啓)의 후손으로 일찍부터 열렬한 크리스찬이었다.

송가수와 예계진은 上海의 감리교 교회에서 서로 만나 결혼하게 됨으로써 宋氏 집안을 이루게 된다. 중국 4대재벌 가운데 하나가 된 절강재벌(浙江財閥) 송가수는 특히 세 여걸을 딸로 두었다. 첫째 애령은 돈을 사랑했고, 둘째 경령은 나라를 사랑했고, 셋째 미령은 권력을 사랑했다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난 송미령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으며 영리하고 활발하고 예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다.

宋嘉樹 부부의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들 6남매

는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 속에 모두 미국에 유학하였다. 孫文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의 해방과 변혁운동에 자식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도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외국에 나가 세계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다.

송경령은 웨슬리안 여자대학(Wesleyan College)에서 철학을 전공하였다. 애령과 미령은 꽤 활달하였는데 비해 경령은 대단히 침착하고 조용하였으며 걸꾸밈이 없고, 또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덕적·철학적 문제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미령은 1908년 12살 되던 해 언니 경령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 1년은 뉴저지주 서미트에서 공부한 후 조지아주 더모래스트에서 공부하였으며, 1912년 조지아주 메이컨시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나이가 모자랐으므로 특별학생으로 입학했다. 다음해인 1913년 보호자 노릇을 하던 경령이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게 되자, 혼자 남게 된 미령은 오빠가 있던 마사추세츠 주의 웰즐리대학(Wellesley College) 1학년으로 전학하였다.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오빠 송자문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였다. 웰즐리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였는데 그 외에도 철학, 수사학, 음악, 천문학, 역사학, 교육학, 강연술 등을 배웠다. 독서를 좋아하고 활달하고 열심이어서, 특히 졸업 때는 가장 영예로운 듀란트 장학생에 선정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였다. 대학졸업 후 1917년 여름 송미령은 10년 가까운 미국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였다. 방년 20세의 그녀는 상해 YWCA의 지도적 회원이 되었으며, 또한 전국 영화 검열위원회에서 활약하였고, 1923년에는 아동노동위원회에 참가하였다.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몇 년간 개인지도를 받았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연설에 재능이 있었다.

이같이 학습과 각종 사업에 참가하면서 또한 상해 사교계에서 떠오르는 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쁘고 세련되고 교양이 있으며 화려하고 멋지게 꾸밀 수 있는 돈도 있었으며,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영어회화 실력은 그녀를 크게 뒷받침해 주었다. 사교모임에서의 그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못 남성이 그녀에게 청혼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특히 유기문(劉紀文; 류지원)과는 미국 유학시절 부터 깊이 사귀는 연애 관계였다.

동일한 성장환경과 교육 속에서 자랐으면서도 세 자매는 각기 다른 인생관을 갖고 서로 다른 인생 행로를 걸어갔다. 이들 자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진 바대로 세계적인 관심사였으며, 세기의 「이산(離散)자매」로도 유명하다. 큰언니 애령(靄齡; 1888~1973)은 강

철같은 현실주의자로 산서성 출신 명문인 금융재벌 공상희(孔祥熙)와 결혼하여 중국 재계를 마음껏 주물렀으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둘째 경령(慶齡; 1893~1981)은 국부(國父)인 손문(孫文)과 결혼함으로써, 최초의 First lady가 되어 가장 확실한 손문의 사상 계승자로서 투철한 혁명운동가로 성숙한 후 대중 편에 서서, 국민당 정권의 부패와 비민주적 정책을 비난하며 중국적으로 중공정권에 합류하여 국가 부주석, 명예주석을 지냈다.

이와 달리 미령(美齡; 1897~2003)은 1927년 장개석과 결혼하여, 중국 제 2의 First lady로서 20여년(대만시절까지 합치면 48년)을 지내며 장개석을 도와 역사적인 회담장에 참여하고, 또한 1943년에는 미국 상하의원에서 연설하여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는 성공적인 외교수완을 발휘 하였다. 그녀는 달변과, 강인한 의지와 미모의 소유자로서, 대만으로 건너간 후에도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의 상징이었으며, 대만의 영원한 First lady였다.

송경령과 송미령은 나이는 4살 차이였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송가수, 예계진이라는 같은 부모의 핏줄을 타고난 자매간이었다. 그리고 두 자매는 선교사가 경영하는 상해의 맥타이어 스쿨(McTyeire School; 中西女塾)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그 교육과정도 꼭 같았다. 다만 경령의 미국 체류기간은 5년이었고, 미령의 미국 체류기간은 10년이었던다는 점은 다르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성격적 차이는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에밀리 한(Emily Hahn)에 의하면 경령은 매우 수줍음을 타는 내성적인 성품으로 엄격하면서도 소박한 면이 많았으며, 초미 일관하는 신념을 관철하는 외유내강의 성격으로 모든 면이 철두철미했다고 한다. 그리고 철학적인 면이 많았다. 옷차림은 암전했고, 그녀 자신이 가꾼 집안 분위기는 간결하고 경직된 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니 경령에 비해 동생 미령은 쾌활하고 재치 있고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외향적인 성품을 가졌으며, 특히 사교적인 재능 면이나 외교적인 수완이 뛰어났다고 한다. 또한 송미령은 열성적이고 생기발랄한 매너와 말솜씨를 가졌는데, 미국 친구들에게 “내 몸과 정신에서 유일하게 동양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얼굴뿐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또 그녀는 “모든 사물에 대해 경애감을 가지고 사고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매사에 열정적이고 성실하였고, 날카로우면서도 재미있

는 냉소주의적인 모습과 순수한 열망을 보이면서, 성숙된 배우나 교사 그리고 정치가적 행동양식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한다.

또한 매우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당돌하고 매사에 철저하여 대단히 강한 면을 띠었다. 특히 크고 눈 꼬리가 길게 뻗친 그녀의 눈은 특이한 매력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미소는 타인을 압도했다. 그녀의 세련된 옷매무새는 타고난 자질이었으며, 무엇을 입든지 세련되게 보였다고 하며, 키는 작았으나 위엄 있고, 당당한 걸음걸이는 그녀를 작게 보이지 않게 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활동 면에 있어서는, 송경령이 손문의 아내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서이자 동지로서 최초의 First lady였으며, 손문 사후는 그의 신3민주의와 3대 정책 수호를 위해 진력하였다. 이에 비해 송미령 또한 장개석의 비서·통역관·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그를 따라 북벌과 항일전에 함께 수행하며 이념적으로도 장개석의 정책을 따른 중국의 두 번째 First lady였다.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른 인생관과 인생행로를 걸었을까?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행동 방향이나 특성, 정치적 노선은 첫째 주관적 조건으로서의 자아의 개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객관적 조건으로서 주변인물과의 인간관계 및 그 영향을 들 수 있으며, 셋째 역사적 조건으로서,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두 자매는 1, 2차 국공합작을 위시한 중국 현대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주목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3. 장개석과의 결혼 그리고 정치외교 활동

송미령의 인생을 바꾸고 그를 중국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장개석과의 결혼이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미국 유학시절부터 사귀어온 유기문이라는 연인이 있었다. 그러나 “너는 장개석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통치하는 황제와 결혼하는 거야”라는 언니 애령의 강력한 권유와 설득, 그리고 퍼스트레이디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권력욕이 한데 어우러져 여자관계가 복잡한 장개석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미령의 나이 30세, 장개석의 나이 40세였다.

장개석에게는 장경국(蔣經國; 장징궈)의 모친인 첫부인 모복미(毛福梅; 마오푸메이)가 있었고, 둘째부인 진결여(陳潔如; 천제루)가 있었으며, 첩인 요이성(姚怡誠; 야오예칭)이 있었다. 이러한 결혼은 둘째 언니 경령과 모친 예계진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장개석의 말에 예계진은 끝내 결혼을 승낙하고 만족해 했다. 그러나 이때 송경령은 망명지 모스크바에서 추위와 고통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 둘의 결합은 정치의 일부분이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냉철하게 내뱉었다. 미령이 장개석 총통의 세 번째 부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지향이기도 했다.

장개석으로서는 미령과의 결혼이 국부로 존경받는 손문과의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알리게 되고, 그 유산을 이어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위한 대외적인 창구를 얻게 되는 호기였고, 자신의 위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장개석은 송미령과의 결혼을 위해 수년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드디어 송미령과 장개석은 1927년 12월 1일 상해에서 채원배(蔡元培; 차이위안페이)의 주례로 성대하고 화려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영웅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던 미령은 장개석과 결혼함으로써 드디어 언니 경령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퍼스트레이디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 이유야 어떠했든 간에 1927년에 결혼하여, 1975년 장개석이 타계할 때까지 그녀의 48년간의 결혼생활은 화려함과 허영과 용기와 뛰어난 외교력과 또한 부부애와 외로움으로 점철된 대장정이었다.

결혼 후 미령은 북벌을 거행한 장개석을 따라 10여 년간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그의 개인비서 통역관 겸 외교 고문으로 발군의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는 외교적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장개석의 결합을 잘 보좌하여 상당한 정치적 작용을 하였다. 1933년 장개석을 따라 공산당 토벌작전에 참가하였고, 1934년에는 신생활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 전면으로 나섰다. 이 운동은 ‘생활혁명’ ‘사회혁명’의 성격을 띤 것으로 송미령은 신생활운동 부녀지도위원회 지도장을 맡아서 이 운동을 리드해 나갔다. 환경의 청결과 위생 점검을 도모하고 여성의 문맹타파를 위해, 대도시와 향진(鄉鎭)에 ‘識字班’이 만들어졌다. 그 외에 해충퇴치운동, 가정위생운동, 아동보건운동, 체육운동, 미신타파운동, 저축제창운동 등이 추진되었다. 여성운동의 방향도 여권쟁취 보다 개인의 희생과 국가를 위한 봉사

를 강조했다.

1936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서안사변(西安事變)은 송미령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으며, 일약 세계적인 명사가 되게 했다. 장개석이 중국공산군인 홍군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기 위해 서안에 갔다가 부하 지휘관이었던 장학량(張學良; 장쉐량)에게 납치 감금된 사건이다. 그는 장개석을 억류한 다음 “내전을 멈추고 항일을 위해 공산당과 힘을 합칠 것”을 요구했다. 송미령은 이 소식을 듣자, 위험을 감수하고 주저 없이 직접 서안으로 날아갔다. 또 서안을 토벌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공산당의 주은래(周恩來; 저우언라이)와 담판을 통해 남편을 구해냈다. 전 세계가 긴장하며 주목했던 이 사건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수행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담력과 외교력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인기는 급상승 하였다. 미국 《타임(Time)》지의 편집자 헨리 루스는 장개석 부부를 “1937년 名人 부부”로 선발하여 그들의 사진을 1938년 1월 주간의 표지에 실었으며, 송미령은 1937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저명한 여성’으로 뽑혔다. 194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할만한 여성’으로 뽑혔는데, “장부인은 아주 사랑스런 사람이다. 의지가 강인하며 절대 감상주의자가 아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품격과 이바지한 공헌에 의거하여 세계에서 그 지위를 얻었다.”라는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의 글도 함께 실렸다. 또한 194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뽑혔으니, 무려 3번이나 《타임》지의 표지모델로 등장하였음을 볼 때, 그녀의 인기와 외교력을 실감할 수가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폭발하자, 송미령은 중국부녀위로자위항전장사총회(中國婦女慰勞自衛抗戰將士總會)를 설립하여 항일전에 헌신할 것을 호소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그녀는 또한 매우 용감하여, 항공사령을 자처하고 나서서 뛰어난 외교력으로 비행기 120대를 미국에서 얻어와, 항공외국용병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송미령의 노력으로 미 공군 퇴역 대령이자 중국 공군군관학교 교관 단장이었던 첸놀트(Claire Lee Chen-nault)와 미국 비행사들로 조직된 비행 부대는 장 총통 부인인 송미령(宋美齡) 여사를 명예 대장으로 추대하였고, 이 비호대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새로운 장비의 도입으로 일본군이

차지했던 제공권을 빼앗는데 큰 역할을 했다.

송미령은 중국 공군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공군에 관심이 많았고, 국민당의 웬만한 장군들 보다 국방 분야에 끼친 영향력이 컸다.

송미령의 서안 사변에서의 활약으로 제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면서 1938년에는 신생활운동부녀지도위원회를 개조하여, 국민당과 공산당 등 모두가 참여하는 민족민주 통일전선으로 조직되었다. 드디어 세 자매는 단결하여 여성 구국활동에 종사하여 부상병 치료, 위문과 전쟁고아 돌보기 등에 봉사하는 한편으로 중국전쟁의 참상과 구제를 요청하는 대미(對美)방송 연설에도 동참하였다. 그런 와중에 1940년대 송미령은 미국의회를 상대로 정열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미국의 원조를 끌어냈으며, ‘차이나로비’의 주역으로 대접받았다.

1943년 2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청으로 외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미국원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하여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40여 일간 전 미국을 돌며 일본의 침략을 통렬히 규탄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했다. 가는 곳마다 미국인으로 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선교사가 중국에 예수를 전했듯이 송미령은 미국에 중국을 알렸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송미령은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는 성공적인 외교 수완을 발휘하였다. 그녀의 매력은 15억 달러의 지원을 얻어내게 만들었다. 또한 1943년 11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총리 그리고 장개석이 참석한 카이로 회담에서는 영어도 못하고, 인상이 썩 좋은 편이 아닌 남편 장개석의 통역을 맡아 활약함으로써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송미령은 탁월한 언변과 정열적인 외교활동으로 수많은 신화를 남겼다. 1949년 공산당에게 패한 뒤 대만으로 건너온 후, 남편을 도와 자유중국 정부의 강력한 배후가 된 그녀에게 있어 권력이란 의지를 성취하고, 상황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

장개석은 수많은 신화를 남긴 아내 미령에게 “당신은 지혜로 따지면 제갈공명 아내와도 비교할 수 없고, 능력으로 말하면 측천무후도 비교할 수 없으며, 강하기로 말하면 서태후보다 백배 더 강하오.”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뛰어난 미모와 능력으로 송미령은 송경령에 못지않을 만큼 중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여성이었다. 장개석 총통

을 세계적 인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자녀를 낳지는 못했다. 그 후 48년간 함께한 남편이 사망한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근교의 롱아일랜드에서 고독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2003년 10월 23일 106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3세기에 걸쳐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여성이다.

1981년 송경령이 사망하기 전 중국 정부는 동생 송미령에게 전보를 쳤으나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1949년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 헤어진 송경령, 송미령 자매는 「세기의 이산자매」가 되어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나지 못했다.

2차 대전의 유일한 생존주역으로 불리며, 兩岸과 미·중 관계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인정받는 송미령은 1995년 98세의 노구를 이끌고, 미국 의회에서 종전 50주년 기념 연설에 참가하여 기립박수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 번 뉴스에 올랐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대만인들에게 송미령은 가장 강력한 반공의 상징이자 「영원한 First lady」로 남게 하였다.

4.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난데없는 듯한 사건인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을 이해하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황과 그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을 이해함이 먼저일 것이다.

1910년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탄된 뒤, 한국의 의병·열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침략에 항거하여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에 나섰다. 조선총독부는 강력한 무단통치를 감행하여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는 한편, 민족 고유문화 말살, 경제적 지배의 철저화로 한국 민족의 정당한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중국·만주·노령·미주 등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지하로 숨어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 T.W.)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원칙 14개 조항의 일부로 1918년 1월 제기되었다. 윌슨이 구상했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연합국과 대결했던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의 식민지에만 적용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모든 피압박 민족에게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져, 각각이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원칙을 해석하여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국의 민족지도자들도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발표가 있자, 이에 의거해 한국 민족의 독립을 호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민족자결주의 발표 이래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어가던 때, 고종황제가 갑자기 승하(昇遐)하였다. 덕수궁에서 기거하던 고종황제는 당시 68세로 건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증병으로 승하했다는 발표가 있자, 국민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때 마침 일제가 독살했다는 말이 퍼져 온 국민들은 망국의 설움과 일제에 대한 적개심으로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 그 내용인즉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돼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뒀고, 시신의 팔다리가 1~2일 만에 크게 부어올라 황제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옷을 찢어야 했으며, 시신의 이는 모두 빠져 있고, 혀는 닳아 없어졌으며, 30cm 정도 검은 줄이 목에서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고, 승하 직후 궁녀 2명이 의문사 했다는 내용(『윤치호 일기』)이었다.

1910년 국권 상실 이래 기회만을 찾고 있던 일부 민족지도자들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발표, 재일 유학생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승하 등이 한데 겹쳐 민족적 항일의식이 고조되자, 거족적인 3·1독립만세운동을 본격적으로 계획하였고, 거대한 민족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정부수립계획이 진행되었다. 당시 중국의 상하이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프랑스조계 김신부로에서 여러 지역의 교포 1천여명과 신한청년당에서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것이 임정 27년 역사의 첫 발걸음이었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경무국장 김구(金九)등이 임명되었다. 9월 6일에는 노령(露嶺)정부와 통합하고, 제 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으로 칭한다)를 수립하였다. 9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그 후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 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1919년 한민족의 단결된 합성으로 폭발한 3·1 독립운동의 성과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축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 임정의 광복정책 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 즉 임정의 수반으로 선출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론에 대한 신채호 등 반대파의 신랄한 비판과 임정 탈퇴, 임정 개조 또는 반대세력에 의한 국민대표회의 소집과 실패, 국내외 동포들로부터 군자금의 중단으로 인한 재정난 및 인력난 등은 임정이 정부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임정체제의 유지를 강조 하던 김구(金九) 등 임정옹호세력에 의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던 바,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개헌을 통한 지도체제의 개편 등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임정의 내부적 혼란과 정치적 어려움에 따른 침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일제에 의해 조작된 1931년 7월의 만보산 사건으로 초래된 한·중민의 적대감정과 불신은, 동3성 지역은 물론 중국내에서 보다 실질적인 한국독립 운동을 전개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1931년 9월의 만주사변과 1932년 1월의 상해사변을 연이어 일으킨 일제의 중국 침략에 따른 중국내 상황 변화는 한국독립운동과 임정의 광복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만주사변과 상해사변은 중국인의 항일의식을 고조시킴으로 한·중 항일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에 김구는 일제의 침략정책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무공작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할 특무대로서 ‘한인에국단’을 조직하였다. 대규모 무장 항일 투쟁의 단계는 어려웠으므로 소수의 정예요원을 통한 충격적인 암살과 파괴공작 등의 의열투쟁을 구상 하였던 것이다. 그 첫 번째 특무공작이 실패로 끝난 이봉창 의사의 도쿄의거(1932년 1월)이며, 이어 임정과 한국독립운동에 있어 새로운 기폭제를 제공하는 대성과를 거둔 특무공작이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이다.

윤봉길은 23세이던 1930년 3월 독립운동에의 헌신을 결심하고 중국 망명길에 올라 丹東과 靑島를 거쳐 1931년 상해에 도착하였다. 김구와 접촉한 윤봉길은 침체하고 있던 독

립운동과 한·중 관계의 악화 등을 해결할 기회를 자신에게 주도록 김구에게 부탁하였다. 김구는 수락함과 동시에 의거를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일본에 의해 열린 천왕의 생일(天長節)경축과 상해사변 승전 기념식장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난 채, 해군 군악대 주악에 맞춰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윤봉길은 이때를 하늘이 준 기회로 알고 물통형 폭탄의 안전핀을 뽑아 단상 한복판을 향해 힘껏 던졌다. 폭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힘차게 날아가 단상 중앙에 떨어졌다. 그러자 곧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되면서, 일본 국가의 남은 부분도 함께 멎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인 상해거류민단장 카와바다(河端貞次)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일본군사령관 시라카와(白川義側)육군 대장도 얼마 뒤 죽었다. 이밖에도 일본 해군 제 3함대사령관 노무라(野村吉三郎) 중장, 육군 제 9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重光葵), 상해총영사 무라이(村井倉松) 거류민단 서기장 도모노(友野盛)등 다섯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군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일본으로 호송되어 12월 18일 총살형을 당했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침체되어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정책을 소생시키는 활력이 되었다. 이후 윤봉길의 희생과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국내외 한인동포들이 임정의 존재 가치와 광복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재개하는 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당 정부와 각 혁명단체들의 임정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주석은 윤봉길의 상해의거를 ‘중국군 30만(100만명)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음’을 극찬하며 높이 평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최근의 논문¹⁾에서 장개석 일기 등을 근거로 그가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며, 그 당시 중·일 간에 진행되던 정전협정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유감 표명과 함께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측 언론보도는 신중한 반면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상해일보』의 경우 윤봉길 의거에 대하여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적을 가진 조선인들과 더욱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동맹을

1) 배경한; 「윤봉길 의거 이후 장개석 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지원과 장기항전」 『역사학보』 236집, 2017. 12.

맺어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군인들과 스스로 애국자임을 자처하는 그 많은 혁명청년들도 결국에는 이국을 유랑하는 국민인 윤봉길 한 사람만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 한 잡지는 “...고려지사의 용기와 정신을 높이 존경하면서 중화민족의 부끄러운 면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어찌 되었든 간에 윤봉길 의거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군 30만(100만명)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음’을 속 시원해 하며 극찬하는 모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윤봉길 의거의 성과에 환호하며 한국인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극찬하였다. 바로 이즈음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이 한국애국단에게 10만원(元 ; 위안)을 기부하였으며, 기타 여러 곳에서의 위로금이 모아졌던 것이다.²⁾ 10만원이란 액수는 상당히 큰 것이었고 송미령은 윤봉길 의거에 대한 큰 경의를 표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송미령의 첫 번째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이었다. 아마 장개석 자신이 공공연하게 기부할 수 없었기에 부인을 통한 기부라는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중국 국민당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측과 교섭을 담당했던 우리 측의 박찬익의 활동을 평가할 수가 있다. 1929년에는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이 창당되고, 그 지부가 남경에 들어섰을 때, 그 대표직을 맡은 박찬익은 이때부터 남경에 수도를 정한 중국 국민당 정부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1930년 그는 중국 국민당에 들어갔다. 중국 국민당의 핵심인물이자 당시 강소성 주석이던 진과부(陳果夫 ; 천과푸)의 소개를 받아, 그는 중국 국민당 국제부 선전과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의 연결점이 되었다³⁾. 그래서 1932년의 송미령의 한인애국단에 대한 10만원 기부 건도 박찬익의 국민당 진과부와 연결점으로서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윤봉길 의거에 대한 장개석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1933년 봄에 이루어진 김구와 장개석의 면담이다. 김구는 “만약 국민당 정부 측에서 1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2년 이내에 일본, 조선, 만주 3지역에서 대폭적인 폭동을 일으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제안했다. 곧이어 김구와 장개석 두 사람의 만남을 다시 주선한 국민당 조직부장 진과부(陳果夫)를 통하여 장개석은 “특무공작으로

2)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연구』, p. 531 해안, 2001. 기부자 명단 ; 송미령 여사 10만원(元 ; 위안 ; 다음부터 원이라 통칭함) 그 이외에도 주경란 1만원, 중국 19로군 1만원, 상해상회 7천원 등의 기부가 있었다.

3) 『백범일지』 도진순 주해, p. 384. 돌베개,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박찬익(林贊翊)-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 외교의 최전선 (독립운동가)

천황을 죽이면 또 다른 천황이 있고 대장을 죽이면 다시 대장이 나타날 것이다. 장래 독립을 도모하자면 무인(武人)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1933년 이 때도 박찬익이 진과부와의 관계 속에 김구, 장개석(蔣介石) 두 거두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일조하였다.⁴⁾

결국 장개석과 김구의 면담 결과 이루어지게 된 국민당의 임정의 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洛陽에 있는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 군관 양성을 위한 특별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이것은 임시정부에 대한 장개석의 대폭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이었다.

일련의 지원자 모집을 거쳐 1934년 2월에 시작된 낙양군교 한인특별반은 1년여의 훈련기간을 거쳐 1935년 4월 초 1기생 6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낙양군교 한인특별반은 1기생의 졸업과 함께 폐쇄 되었다. 일제의 특무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남경주재 일본영사를 통하여 낙양분교 한인 훈련에 대하여 국민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 때문이었다. 낙양분교 한인특별반 폐쇄 이후 김구는 1기 졸업생 중 일부를 南京의 중앙군관학교로 옮겨 훈련을 계속 받도록 했으며, 이어서 개인자격으로 중앙군관학교를 비롯한 각 분교에 적지 않은 수의 한인청년들이 입교하여 군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대중(對中)관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또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는 중국은 북벌문제 등 국내분란으로 정부 간에는 손문(孫文)의 광둥군정부(廣東軍政府)와 교섭이 있었고 임정을 첫 인정한 셈이다. 그 당시는 개인적 친분에 따라 교섭하는 길밖에 없었다. 개인적 교섭은 신규식·박찬익(朴贊翊) 등이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북벌을 완성한 1928년 뒤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에 냉담하였다. (대중외교에서 중요한 몫은 만주, 즉 동3성 동포의 생활문제였다. 그런데 1930년 국민당대회 때 동3성한교문제(東三省韓僑問題)를 제안하였지만, 접수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1932년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를 계기로 상황은 달라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도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주저하여,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김구 등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관계자 또는 김원봉 등의 독립운동자를 개별적으로 비밀리 지원

4)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 신용하 p.466. 2006. 경인문화사

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런데 지원 자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나 개인별로 그것도 비밀지원의 방법을 취하여 많은 오해와 분란을 야기시켰다. 중국의 지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서는 절대적인 문제였다. 특히 일제의 발악적인 반격으로 상해를 떠나게 되었고, 뒤 이어 일어난 중일전쟁(1937)으로 중국 각처를 옮겨 다녀야 하는 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상해(上海; 상하이 1919) 항주(杭州; 항저우, 1932) 진강(鎮江; 전장, 1935) 장사(長沙; 창사, 1937) 광둥(廣東; 광둥, 1938) 유주(柳州; 류저우, 1938) 기강(綦江; 치장, 1939) 중경(重慶; 충칭, 1940) 등지를 차례로 이동하며 기착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 서부 깊은 곳인 중경에 정착한 뒤로는 다른 나라와의 교섭이 단절된 처지였으므로, 중국정부가 지원을 외면하였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곤경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군이 남경(南京; 난징)을 공격해 사흘 만에 점령하면서 장개석(蔣介石;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피란길에 올랐다. 호북(湖北; 후베이)성 무한(武漢; 우한)을 거쳐 1938년 11월 중경에 전시 수도를 세웠다.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장개석에게 중경으로 가겠다는 것을 전보로 요청하였다. 장개석이 중경으로 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⁵⁾ 국민당 정부를 따라 3년 6개월 가량 머물렀던 중국 절강(浙江; 저장)성 항주(杭州)를 떠나서 중경까지 이동하는 데는 중일전쟁의 난리 통에 장장 6000리 대장정에 34개월이나 걸렸다.

일단 중경에 자리를 잡으니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 각지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단체들은 중경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된 군사 활동과 외교 활동이 필요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광복군이 조직되었다. 1940년 9월 17일 장개석 총통의 승인 하에 중경 가릉빈관(嘉陵賓館; 자링빈관)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총사령관에는 지청천(池青天)을, 참모장에는 이범석(李範奭)을 임명했다. 광복군 창설까지의 경비는 미국 하와이 교포의 의연금 4만원과 중국부녀위로총회장 송미령의 축하금(특별위로금) 10만원을 비롯하여 중국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원조금⁶⁾으로 충당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광복군의 장비와 유지비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서 큰 진전을 보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부녀단체를 대표한 중국부녀위로총회장 송미령(宋美齡)여사가 축전과 함께 보내온 이 10만원(元)의 축하금은 너무나 고마운

5)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5. 『대한민국임시정부 111- 중경시대』 P. 4. 한시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6) 『백범일지』 도진순 주해 p. 384 둘째개 2015.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연구』 이현희, p. 539, 주. 87. 혜안, 2001.

공훈전자자료관; 1940년 10월 17일 중국부인구제회 영수장 송미령 여사 우리 독립군에게 10만원 기부.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운동사 제 6권 P. 196.

일이었던 것으로, 이것은 송미령의 두 번째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이었다. 아울러 중국 각계 명사들의 많은 격려와 원조가 답지한 것은, 역시 분골쇄신, 조국 광복에 몸을 바치려고 나서는 광복군들에게 적지 않은 고무적인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다.⁷⁾

마침내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군으로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달인 10월에 국무위원이자 법무부장이 된 박찬익은 중국 국민당의 핵심 인물인 주가화(朱家驊; 주자화)에게 교섭하여 한인 청년들을 광복군으로 모집할 징모처 조직 활동비 10만원을 지원받았다. 바로 이 시기는 송미령 여사의 두 번째 10만원 기부와 같은 시기였다. 그 시기 10만원의 지원금은 얼마나 큰 액수인가를 느끼게 한다. 중국에서 벌인 독립운동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대한 외교는 절대적인 분야였고 이 일선에 섰던 분이 박찬익이었다. 만주에서도 그랬고, 중국 본토에서도 그랬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전까지는 주로 외교나 선전, 의거 활동만 벌였지만 이제는 마침내 정규군을 갖게 된 것이다. 정규군이란 국가에서 조직해 훈련시킨 정식 군인을 뜻한다. 한국광복군은 일제에 맞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당시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광복군도 처음에는 중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광복군은 많은 경비가 필요해 늘 중국정부의 양해를 얻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광복군의 조직을 찬성했지만, 한편으로 임시정부와 분열 상태에 있는 김원봉(金元鳳)계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와 이미 합동하여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다. 장개석 총통은 한국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1941년 10월 30일 하응흠(何應欽; 허잉친) 장군에게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를 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키고 참모총장이 이를 주관케 하였다. 아울러 중국정부 군사위원회에서 광복군이 항일작전 기간 중 중국 군사위원회에 직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9개항의 조건(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내세워 임정에 지원을 제의해 왔으나 임정은 처음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그 내용은 중국 측이 광복군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광복군의 행동을 속박하고 통수권을 빼앗아 가기위한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당시 대한

7) 신용하,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 P. 474~477. 경인문화사 2006.
[네이버 지식백과] 광복군 [光復軍] (두산백과)

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은 군대를 편성해 놓고 중국 측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활동은 커녕 생계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갑론을박의 격론 끝에 결국 ‘한국광복군 9개항 행동준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짓고, 1941년 12월 1일 수락선언문을 발표하여 군수물자의 충당을 일단 해결했다. 김구는 창설 기념식에서 이미 그는 “광복군은 한국과 중국이 합작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고 내외에 공표했었다.⁸⁾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이 발생하여 미국이 참전하자, 중국은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하였고, 연합군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임시정부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를 하였지만, 일본 정부에 포고문서(布告文書)가 통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성(實効性)은 없었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2년 봄 일본군이 버어마에 침공하자 인도에 주둔한 영국군과 전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도 버어마 전선에 광복군이 파견되어 영국군과 대일 전쟁을 수행했다.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란 이름으로 광복군 대원중에서 한지성, 나동규, 김성호 등 9명이 선발되어 이듬해 인도의 캘커타에 파견되게 된다.⁹⁾

1942년 5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광복군에 편입하여 제 1지대로 개편하였다. 기존의 제 1, 2, 5지대를 통합하여 제 2지대로 편성해서, ‘3개 지대 편제’로 개편하였다. 제 1지대장은 김원봉(金元鳳)(부사령[副司令] 겸임), 제 2지대장은 이범석(李範奭)이 취임하였고, 제 3지대장은 변함없이 김학규(金學奎)였다. 참모장에는 윤정보(尹埈輔)(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소속)가 취임하였다.¹⁰⁾

중국정부는 태평양전쟁 후부터는 종전의 비밀지원과는 달리 공개적이고 정당 또는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중국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전담하였다. 그러나 그 돈은 불어나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먹여

8) 『대한민국임시정부 111- 중경시대』 P. 135. 한시준,

9) 위의 책 PP. 82~84.

1942년 봄 일본군이 버어마에 침공하자 인도에 주둔한 영국군과 전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도 버어마 전선에 광복군이 파견되어 영국군과 대일 전쟁을 수행했다. 1942년에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란 이름으로 광복군 대원중에서 한지성, 나동규, 김성호 등 9명이 선발되었다. 1943년 영국군 총사령부가 있는 인도 캘커타에 도착하여 교육을 받고 일본어 방송, 번역, 전단 작성 등에 투입되었다. 영국군으로서는 영어와 일본어를 아는 한국병이 필요했던 것이다.

10) [일본 위키백과 번역] -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살리기에는 태부족이어서 김구는 1942년 6월 주가화(朱家驊; 주자화)에게 “중국정부가 우리에게 미화 40만 달러의 신용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가화는 중국정부 재정부장 공상희(孔祥熙; 쿵상시)에게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 하였지만 공상희(孔祥熙; 쿵상시)는 “항전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독립당이 달러를 필요로 한다면 직접 미국정부와 접촉하여 차관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부정적 답변을 보내왔다. 신용차관을 얻지 못한 임시정부는 보조비를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구는 주가화에게 월 6만원의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장개석 위원장에게 보조비를 증액해 주도록 간곡히 청해 달라고 하였다. 요구한 보조금은 20만원이었다.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 활동비를 비롯하여 중경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교민 340명의 생활비로 월 20만원은 있어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비는 결국 중국국민당 중앙에서 지급되었다.¹¹⁾

이에 1942년 7월 임시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광복군 지원에 대한 정식협정이 체결되어, 드디어 광복군은 중국 각 처에서 연합군과 항일공동작전에 나설 수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이 시점이 1942년 송미령이 중국부인전시구제회 회장으로 광복군 출정군인 가족에게 10만원의 구제비를 지원한 때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42년 중국부인전시구제회(中國婦人戰時救濟會) 회장으로 광복군 출정 군인의 가족에게 10만원의 구제비를 지원했다’ 라는 내용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1942년 인도 버어마 전선에 광복군이 처음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송미령의 이 세 번째 기부행위에 대한 기록은 독립운동사, 공훈전자자료관, 임정관련 각종 서적을 훑어 보아도, 책을 쓴 지은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등 여러 방법으로 찾아 보았지만 나오지를 않는다. 추적해 보건데, 장개석으로서는 중국군사위원회를 통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 부사령 직제를 증설하고 김원봉을 부사령으로 파견하며,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광복군에 편입하여 제 1지대로 개편하고, 참모장에는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 윤정보(尹呈輔)로 했던, 바로 이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극도로 어려운 재정사정을 호소하는 김구의 사정을 듣고 장개석은 20만원과 함께 부인 송미령에게 기부를 요청했으리라 생각된다. 이 시기의 송미령의 10만원 지원의 바로 이 사실이 송미령의 세 번째 대한민국

11) 『대한민국임시정부 111- 중경시대』 PP. 141~143

독립지원 활동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 활동비 및 중경에 거주하는 한교 340명의 한 달 생활비로 20만원은 있어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10만원은 상당한 액수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세 번에 걸친 30만원 지원은 큰 액수였던 것으로, 송미령이 대한민국으로 부터 1966년 훈격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이리하여 송미령의 세 번에 걸친 임시정부에 대한 기부는 첫째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10만원, 두 번째 1940년 임정에 광복군이 창립되자 축하금으로 10만원, 세 번째 광복군의 인도 버어마 전투 파견이 결정되자 그 가족들을 위한 위로금으로 10만원, 도합 30만원이었던 것이다.

그 후 김구(金九) 주석은 중국 국민당의 오철성(吳鐵城; 우티에청)에게 공문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9개항 행동 준승의 해결을 촉구하고, 오철성은 다시 장개석(蔣介石) 군사 위원장에게 이 내용을 상달하였으며, 장 위원장은 군사위원회에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명하였다. 이리하여 1944년 9월 8일에는 중국 측에서, ‘한국광복군은 한국 임시정부에 예속한다.’는 통보를 하게 됨으로, 한·중 군사 협정 체제는 우리 측의 요구대로 해결을 보게 됨과 함께 평등한 입장에서 다시 새로운 군사 협정의 체결을 갖게 되니, 우리의 오랜 숙원은 드디어 성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은 전후 처리에서도 한국의 완전독립을 주장한 유일한 국가였다. 그것은 당시 중국 처지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다른 어떤 국가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계산이 있었으므로 광복군을 그들의 작전권 하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교섭으로 종전 때는 광복군 작전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접수할 수 있었다.

대중국 외교에서 또 하나의 초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문제였다. 중국의 승인이 중요했던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받아야 국제법상 정식관계가 수립될 수 있었다. 또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발판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문제는 전후 한국에 대한 독립의 약속이므로 절실한 문제였다. 1942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을 공론에 붙이며 기미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승인을 보류하고 말았다. 그것은 중국 자기 자신의 전후처리 문제로 미국의 눈치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 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國內挺進軍)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미국전략사무국 ; Office of Strategic Service)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 광복을 맞았으므로 모든 준비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은 결국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7년간의 중경 생활을 마치고 떠날 당시 중국공산당 본부에서 주은래(周恩來) 동필무(董必武) 등이 우리 임시정부 국무원 전체를 초청한 송별연이 있었다. 국민당 정부에서도 당연히 송별연을 열었다. “장개석 선생을 위시하여 중앙정부와 중앙당부 각계 명망가 수백 인이 모였고, 우리 측에서는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한국독립당 간부들이 초청받았다. 연회는 중국국민당 중앙당부 대례당(大禮堂)에서 중·한 국기를 교차한 채 융숭하고 간곡하게 진행되었다. 장개석 주석과 송미령 여사가 선두로 ‘장래 중·한의 영구 행복을 도모하자’고 연설하였고, 우리 측 답사가 있는 후 끝마쳤다.”라고 백범 일지에서 김구는 쓰고 있다.¹²⁾ 그리고 중국에 남아있는 한인들의 수습, 귀국 후에 소요될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해 요청한 김구에게 흔쾌히 미화 20만 달러라는 엄청난 거금도 지원했다. 하지만 이 돈은 미 군정청이 반입을 불허해 국내에 들여올 수가 없었다. 장개석과 김구간의 우의는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며 1949년 김구의 서거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한 [만(輓) 백범 김구선생]이라는 만사(輓詞)를 보냈다.¹³⁾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

12) 『백범일지』 도진순 주해 p. 401. 돌베개, 2015.

13) 『백범회보』 제 59호(2018. 12. 20.) 서상문, 「김구, 김신 부자와 장개석, 장경국 부자의 2대에 걸친 우의」 김구는 그 20만 달러를 뉴욕주재 중국대사관에 맡겨두었다가 나중에 이승만이 이 돈을 쓰기위해 장개석을 만나기까지 했지만 수령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절반을 중국에 파견된 임정의 주 중국 대표단 단장 박찬익에게 중국에 머무르고 있던 한국교민들의 귀국과 연락 등의 사무를 위해 쓰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49년 김구가 암살 당하자 장개석은 애도한 만사를 보냈다.

[장개석 총통이 쓴 김구(金九) 만사(輓詞)]

樞星一夜落江山 (추성일야낙강산) 북두의 으뜸별이 하룻밤 새 강산에 떨어지니
天慟地悲水自鳴 (천통지비수자명) 하늘이 울고 땅이 슬퍼하고 물도 절로 우는구나
別淚濼濼愴海濶 (별루진진창해활) 이별의 눈물 흘러 슬픔이 창해에 넘치고
憤心豐鬱泰山輕 (분심부루태산경) 분한 마음 첩첩이 쌓여 태산도 가볍구나
堂堂義氣生前事 (당당의기생전사) 당당한 의기는 살아 생전의 일이지만
烈烈精神死後名 (열렬정신사후명) 열렬한 정신은 사후에 이름 빛나네
天秋冤恨憑水問 (천추원한빙수문) 천추에 맺힌 원통한 마음 뉘한테 물으리오
寂寞皇陵白日明 (적막황릉백일명) 적막한 황제의 무덤엔 해만 외로이 밝구나

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임정 27년사는 우리 민족의 최대 역량과 자주 독립에의 집념 염원 희망 포부가 동시에 퍼지면서 국내외와의 연계 하에 독립을 쟁취하는데 구심점과 대표성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7년간의 임시정부 과정에서 송미령의 세 번에 걸친 독립군 지원과 임정의 피나는 노력을 실감하면서 논문을 쓰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27년 동안 면면히 이어온 임정의 정신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이에는 비밀활동 시기였고, 항저우는 혼란기였지만 임시의정원이 정립하는 시기였고, 충칭은 임정의 황금기였습니다. 한국광복군도 창설했으니까요.”라고 말한 이선자(李鮮子) 충칭 임정기념관 전 부관장(한인교포)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¹⁴⁾

5. 맺음말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정보를 보면 15,180 명이라는 많은 사람 가운데 외국인은 총 89명으로 미국 21명, 중국 33명, 영국 6명, 캐나다 5명, 아일랜드 2명, 일본 2명, 프랑스 1명이다. 그중 중국이 47%, 미국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훈격에는 7가지가 있는데 제일 높은 훈격이 대한민국장(1), 다음이 대통령장(2), 독립장(3), 애국장(4), 애족장(5), 건국포장(6), 대통령 표창(7)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람은 30명인데 중국인은 5명으로 수여 연도별로 보면, 장개석(蔣介石; 장제스 1953), 宋美齡(송미령 1966), 진과부(陳果夫; 천귀푸 1966), 손문(孫文; 쑨원 1968), 진기미(陳其美; 천치메이 1968)로, 여성으로서는 유일하며 또한 나머지 4명의 중국 지도자 명단을 볼 때,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도움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웅변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다.

14) 『중앙일보』 2019년 1월 15일자 기사 「임정, 중일전쟁 나자 충칭으로…34개월 6000리 대장정 충칭」= 문영숙 작가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고 고증하기 위하여, 먼저 송미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일생을 살펴보았다. 송미령의 성장환경과 교육, 장개석과의 결혼 그리고 정치외교 활동에 대하여 소략하지만 살펴봄으로써 송미령을 역사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것은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운동 지원의 원인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송미령(宋美齡; 쑹메이링)은 1898년 상하이에서 송가수라는 부자의 막내딸로 태어나 미국에서 웰즐리대학을 졸업하고 10년여 생활하였고, 귀국 후에는 사회활동을 하다가 1927년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개석(蔣介石; 장제스)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 장개석의 비서이자 통역으로 외교 고문으로, 대미관계 조정의 로비스트로서 자신의 탁월한 재능과 수완을 십분 발휘하였다. 국민정부 입법위원·항공위원회 위원·비서장·부녀협회 신생활운동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게 활약하였는데, 이재(理財)에도 외교에도 아주 밝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장제스가 서안(西安; 시안)사건 당시 국·공 합작을 통한 항일 전쟁을 요구하는 장학량(張學良; 장쉐량)에 의해 연금되자 직접 나서서 주은래(周恩來; 저우언라이)와의 담판을 벌여 2차 합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1940년대의 송미령의 대외 활약은 눈부셨다. 송미령은 1943년 2월 미국 상하 의회를 방문하여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국민당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원조를 호소하여 기립 박수를 받았으며, 1943년 카이로 회담에도 장개석의 통역으로 참가하여 세계적인 화제를 낳았다.

이와 같이 송미령은 개인적인 매력과 외교력이 대단했으며 자신을 민주주의의 수호자, 중국의 기독교 정신의 전파자, 반파시스트 투사로 나서며 대단한 인기와 영향력으로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장기간 저항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

결국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자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간 뒤에도 뛰어난 영어구사 능력, 재력 등을 동원해 미국의 정·관·재계에 '타이완 커넥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1950년대 대만에서 국민당 중앙평의위원, 타이완부녀반공항소연합회(臺灣婦女反共抗蘇連合會)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송미령은 중공의 위협 속에 대만국민당을 생존 가능케 한 데도 기여하였다. 1975년 장개석 사망 이후에는 1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타이완과 미국과의 유대강화에 힘썼다. 둘째 언니인 송경령(宋京齡; 쑹칭링)이 국가 부주석으로 재임 중이던 1970년대 전후에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자매 대결을

벌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971년 10월 25일 제 26차 유엔총회에서 중공의 유엔가입으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게 되었다. 자식은 낳아보지도 못하였고 남편 장개석의 사망 후 본처 아들 장경국(蔣經國; 장징궈)과 불화하면서 그 후 1986년 장제스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귀국, 이후 대북(臺北; 타이베이)에서 머물었다. 그 후 장기요양을 위하여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2003년 106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외롭게 사망하였다. 2차 대전의 유일한 생존 주역으로 불리며 양안(兩岸)과 미·중 관계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인정받는 송미령은 1995년 98세의 노구를 이끌고, 미국 의회에서 종전 50주년 기념 연설에 참가하여 기립박수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 번 뉴스에 올랐다. 국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대만인들에게 송미령은 가장 강력한 반공의 상징이자 「영원한 First lady」로 남게 하였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그 시기와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이 글을 끝내고자 한다.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에 대한 자료는 보훈처나 공훈관리과를 통해 알아보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부였다 즉 “1932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윤봉길(尹奉吉)의 의거가 일어나자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1940년 중경(重慶)에서 광복군(光復軍)이 조직되자 다시 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1942년 중국부인전시구제회(中國婦人戰時救濟會) 회장으로 광복군 출정군인의 가족에게 10만원의 구제비를 지원함”이라는 내용이다.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를 속속들이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알아 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원은 1932년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자 송미령은 한인애국단에 통쾌한 마음으로 후원금 10만원 지원하였다. 두 번째 지원은 1940년 10월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이 조직되자 송미령은 축전과 함께 10만원 후원금 지원하였다. 세 번째는 1942년 송경령이 중국부인전시구제회 회장으로 광복군 출정군인 가족에게 10만원의 구제비를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1942년 인도 버어마 전선에 광복군이 처음으로 파견하기로 한 결정 이후였다고 짐작된다.

1942년 7월 임시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광복군 지원에 대한 정식협정이 체결되어, 광

복군은 중국 각 처에서 연합군과 항일공동작전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뒷 배경으로는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에 합편기로 결정하였고, 광복군 총사령부 부서의 재조정과 함께 각 지대의 통합 또는 재편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 부사령 직제를 증설하고 김원봉을 부사령으로 파견하며,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광복군에 편입하여 제1지대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동한 시기여서 장개석은 임정 처사에 대해 만족함을 표하며 재정적 후원을 약속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송미령의 후원은 장개석의 우리 임시정부에 대한 정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였으므로 장개석도 송미령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한 공로로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먼저 수여받았던 것이다. 송미령은 한국으로 부터 1966년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한 공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 받았다.

그러면 1930년대 40년대의 중국 돈 10만원(元; 위엔)은 얼마만한 가치가 될까? 수억 대는 되리라 본다.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 활동비 및 중경에 거주하는 한교(韓僑) 340명의 생활비로 20만원은 있어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임정 관계자의 말 내용을 참고할 때 송미령의 10만원 지원은 상당한 액수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세 번에 걸친 30만원 지원은 큰 액수였던 것으로 송미령이 대한민국으로부터 1966년 훈격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송미령 관련 내용 참고 서적

- 1] 『송미령 평전』 陳廷一 지음, 이양자 옮김. 한울. 2004.
(원전은 陳廷一, 『宋美齡全傳』 青島, 青島出版社. 1993)
- 2] 『중국 근대화를 이끈 걸출한 여성들』 이양자 외 지음. 지식산업사. 2006.
- 3] 『송경령 평전』 장룡, 존 할리데이 지음 이양자 옮김. 지식산업사. 2001
- 4] 『송경령 연구』 이양자 지음 일조각. 1998
- 5] 『20세기 중국을 빛낸 위대한 여성, 송경령』 상·하. 이스라엘 엡스타인 저, 李陽子 옮김. 한울, 2000
- 6]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중국여성사연구실. 이화여자대학교 2005
- 7] 『중국여성해방의 선구자들』 중국여성사연구회. 한울림. 1985
- 8] 『중국여성운동사』 상·하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편, 박지훈, 전동현, 차경애 공역. 김염자 감수. 한국여성개발원. 1992.
- 9] 『사료로 보는 중국여성사 100년』 일본여성사연구회 지음 이양자, 김문희 옮김 한울. 2010.
- 10] 『역사를 움직인 중국 여성들』 이양자 지음. 살림출판사. 2015.

* 송미령 관련 내용 참고 논문

- 1] 「송미령」, 천성림, 『중국 근대화를 이끈 걸출한 여성들』 PP.111~138.
- 2] 「宋慶齡(1893~1981)과 宋美齡(1897~생존)」 이양자. 2000. 4.
《송경령과 20세기 논문집》 중국, 상해송경령연구회.

*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관련 내용 참고 자료

- 1)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이현희. 집문당. 1983.
- 2)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 이현희. 해안. 2001.
- 3)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신용하. 2006. 경인문화사
- 4) 『백범일지』 도진순 주해, p. 384 돌베개 2015.
- 5)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5. 대한민국임시정부 111- 중경시대』 한시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 6)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연구』 윤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7) 『장제스 평전』 조너선 펜비 지음, 노만수 옮김. 민음사. 2014.
- 8)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운동사 제 6권 : 독립군전투사(하) - 1. 태평양전쟁 발발
독립운동사 제 6권 : 독립군전투사(하) - 2.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典禮)
독립운동사 제 4권 : 임시정부사 - 1. 광복군의 성립 경위
독립운동사 연표
신한민보 1942년 10월 17일자
- 9) [네이버 지식백과] 광복군 [光復軍](두산백과)
- 10) [네이버 지식백과] 박찬익 [朴贊翊] -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외교의 최전선 (독립운동가)
- 11) [일본 위키백과 번역] - 한국광복군 (韓國光復軍)

* 송미령의 대한민국 독립지원 활동관련 내용 참고 논문

- 「윤봉길 의거 이후 장개석 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과 장기항전」 배경한, 『역사학보』 236집. 2017. 12.
- 「윤봉길의 상해의거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황묘희, 『민족사상』 2-1 2008

[부록 1]

[송미령(1897~2003)의 연도별 활동 일대기]

장개석 부인. 1927~1949년 까지 중국의 두 번째 First Lady.

1949~1976년 까지 대만의 First Lady 이후 미국에서 생활.

2003년 10월 106세로 사망.

1) 宋氏집안 ; 송가수 + 예계진 → 6남매 (3자매 애령, 경령, 자문, 미령, 자량, 자안)

2) 송경령 ; 손문과 결혼. 중국 최초의 First Lady(1915~1925)

3) 송미령의 미국유학 ; 1908年 (12歲)

뉴저지주 서미트 → 조지아주 더모레스트 → 조지아주 웨슬리안 대학 입학

→ 마사추세츠 주 웰즐리대학 졸업 → 듀란트 장학금 수령 우수학생.

영문학 전공(부전공 철학)

4) 귀국 ; 1917年 (20歲)

YWCA 지도적 회원, 전국영화 검열위원. 아동노동위원. 사교계의 여왕.

유기문과 연애. 손문의 추천으로 장개석과 선뵈. 부친사망(1917). 손문사망(1925)

5) 장개석과 결혼 ; 1927年 (송미령 30歲, 장개석 40歲)

장개석 ; 보정군관학교 → 일본육군사관학교 → 광둥군정부참가 → 소련군사제도시찰

→ 항포 군관학교 교장. 언니 송경령은 모스크바 망명 중.

큰언니 송애령의 결혼작전 성공.

12월 1일 결혼. 상해 머제스틱 호텔에서 채원배 주례로 거행.

6) 장개석의 공산당 토벌작전 ; 결혼 후 10여년간 장개석을 수행 (비서, 통역관, 외교고문)

항공용병대 창설. 전선 상황 취재. 열사 유족학교 경영. 공산당 토벌전 동행 참가.

1934년 신생활운동 전개 (禮,義,廉,恥) → 대중적 인물로 부상, 송경령의 비판

1932년 4월 조선 청년 윤봉길의 의거를 중국군 장제스(장개석) 사령관은 격찬하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1932년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자 송미령은 한인에국단에 후원금 10만원 지원함.

7) 서안사변 (1936.12.12.)과 활약

장개석이 초공전을 반대하는 장학량 등에 의해 서안에서 납치 구금됨.
서안 공격파(하응흠) 억제하고 서안으로 날아가 평화적으로 사건해결.
국공합작 끌어냄.

담력과 외교력 과시. 《Times》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으로 선정됨 (1937년).

8) 중일전쟁 발발과 제 2차 국공합작 (1937~1941) : 3자매의 단결

여성구국활동 종사. 중국전시아동보육회. 중국부녀항적후원회 결성.

여산부녀담화회개최. 신생활운동부녀지도위원회지도. (중국여성계 연합, 공동항일).

3자매는 단결하여 중국전쟁의 참상과 구제를 요청하는 대미(對美)방송 연설.

* 1940년 10월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이 조직되자 송미령은 10만원 후원금 지원.

환남사변(1941년 1월) 이후 국공합작 붕괴.

9) 송미령의 외교수완 (1942~1944)

* 1942년 중국부인전시구제회 회장으로 광복군 출정군인 가족에게 10만원 구제비 지원

1943년 2월 미국 국회 상하원에서 연설(기립박수 받음)

1943년 미국에 송미령의 바람이 분. 미국은 15억달러 중국에 무상지원.

루즈벨트 대통령 부처와 친밀한 관계.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 초청, 루즈벨트, 장개석과 동석. 외교적 걸출한 능력 발휘

10) 국공내전 (1946~1949)

요심전투. 회해전투 당시 장춘, 금주방문. 위립황, 변한걸 장군 격려.

마지막 미국 방문(1948. 11.): 미국의 냉담. 4대가족(將, 宋, 孔, 陳)의 부패 부정.

11) 장개석의 하야 → 대만으로(1949)

요심, 평진, 회해전투 패배 → 장개석 하야. 총통대리 이종인.

장개석, 송미령. 돈, 금, 은, 보물 대만으로 옮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시작

대만에서의 생활(1949~1976) : 장개석 대만총통, 퍼스트레이디 송미령.

중공의 유엔가입 저지(1954). 장경국의 독주와 불화(장경국, 장위국).

1971년 10월 25일 제 26차 유엔총회에서 중공의 유엔가입.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소외됨.

1975년 4월 장개석 사망(1887~1975)

12) 미국에서의 생활(1976~2003) : 만년의 도교적 생활 (老子的 淸淨無爲)

98세(1995) : 미국 의회에서 승전 50주년 기념연설.

100세(1997) : 생일잔치

2003년 10월 106세로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사망.

대만의 장개석 옆에 묻히지 않고 뉴욕 근교의 판클리프 공동묘지에 묻힘.

[부록 2]

《宋氏系譜》

